

# 안동 하회마을과 형제사방

안동은 경북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동으로 영양, 청송, 서에는 예천, 남으로는 의성, 북으로는 영주와 봉화에 맞닿아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고가옥 등 한옥으로만 이루어진 하회민속마을, 퇴계 이황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도산서원, 현존 최고의 목조건물이 있는 봉정사 등 273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하회마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보존돼 그 가치가 높다. 안동 하회마을은 충남외암리, 순천 낙안읍성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과 풍속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민속마을이다.

글 · 사진 : 전기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듯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독특한 건축양식을 이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거미줄처럼 놓인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걸다보면 양진당, 충효당, 북촌대, 남촌대, 하동고택 등 고택들이 불쑥불쑥 나타난다. 상류층의 기와집에서부터 민가의 초가토담집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을 한자리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999년 4월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하기도 했다.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위치한 하회마을은 원래 김해 허씨들의 집성촌이었으나 고려말 류종혜 선생이 이곳에 터를 잡은 후, 600여 년에 걸쳐 풍산 류씨의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 중기 유학자인 류운룡 선생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선생 형제의 후손이 살고 있어 이를 잘 뒷받침한다.

하회마을 중앙의 양진당은 풍산 류씨 대종택으로 현재 54칸이 남아 있는데 보물 306호로 지정되어 있다. 수수하면서도 멋스럽고, 여유가 느껴지는 건물이다. 충효당은 류운룡의 아우인 서애 류성룡의 종택으로 소종택으로 분류된다. 양진당은 600여년, 충효당은 4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부용대는 하회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변의 절벽에 자리 잡은 전망대다. 부용대 오르는 길목에 옥연정사가 낙동강을 바라보며 세워져 있다.



▼ 안동하회마을 전경



옥연정사는 조선 선조 19년 서애 류성룡 선생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곳이다. 부용대 정상까지는 불과 10여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높이이다. 짧은 구간이기는 하지만 제법 숲이 울창해 아채롭다.

부용대 정상에서는 낙동강과 함께 하회마을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마을 주위로 낙동강이 'S'자를 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지형이 물위에 떠 있는 연꽃과 흡사하다 하여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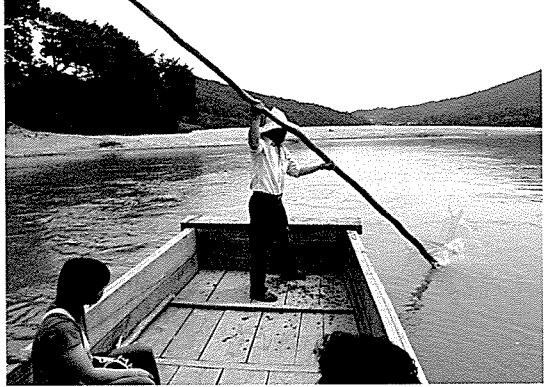
### 별미 헛제사밥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낸 음식으로 비빔밥을 해 먹는 풍습이 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제사밥을 먹기 어려워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을 마련하고 이를 비벼 먹는 것을 헛제사밥이라 한다.

특히 유명한 서원이 많은 안동에서는 유생들이 쌀이 귀한 시절 제사음식을 차려놓고 축과 제문을 지어 풍류를 즐기며 거짓으로 제사를 지낸 후 제수음식을 먹었다는 설이 전해 내려온다. 또는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민들이 쌀밥이 먹고 싶어 그냥 헛 제사음식을 만들어 먹은 데서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헛제사밥은 일반적인 비빔밥과는 달리 양념고추장과 고춧가루 및 볶은 색을 쓰지 않는다. 고사리, 미나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등의 각종 나물들을 쇠고기를 다져 볶은 것, 간장, 깨소금, 참기름과 함께 비빔밥으로 한다. 하회마을 전통식당에서 헛제사밥을 맛볼 수 있다.

▼ 부용대 나룻배



### 실용정보

**하회마을** <http://www.hahoe.or.kr>  
입장료 어른 1,5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600원  
주차료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  
하회마을관리사무소 ☎054-854-3669  
하회마을관광안내소 ☎054-852-3588

**부용대 나룻배**  
하회마을과 부용대를 잇는 나룻배가 운행되고 있다. 사공이 직접 노를 젓는 진풍경을 구경할 수 있다.  
운영시간 11:00~17:00, 월요일 휴무  
요금 대인 2,000원, 소인 1,500원

**관광농원 옥류정**  
마을 입구 옥류정에는 지하 150m에서湧출되는 천연수와 서예예술관 등이 있다. 안동의 전통 음식인 헛제사밥, 안동식혜, 안동소주 등이 있고, 포장된 안동 간고등어를 구입할 수도 있다. 민박가능. 대형주차장. 옥류정 ☎054-854-8844



**숙소**  
옛 정취를 느끼면서 조용히 민박을 지낼 수 있다.  
조용한 민박 054-853-2207, 15번 민박 054-853-2574, 하회민박 054-852-8550, 가장 큰 민박 054-853-2388, 7번 민박(초가집) 054-853-2549, 청기와민박식당 054-852-8361, 객실이 넓고 깨끗해 이용하기 좋은 하회파크모텔(054-853-4006)